

가전제품 해외직구와 위협받는 소비자 안전

(주)밀레코리아

우리나라의 전기규격이 외국(특히 유럽)과 상이함에 대한 고려없이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가전제품 구매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고려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용 가전제품의 정격 전압과 주파수는 220V 60Hz 며 독일을 포함한 유럽 지역은 주로 230V 50Hz 를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공식 판매되고 있는 모든 밀레 가전제품은 한국기술표준에 맞추어 특수 제작된 완제품으로서 국내 전기안전인증, 전자파적합 인증을 통과한 제품만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해외 가전을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전압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변압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제품의 소음이 커지거나 에너지 소모량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파수는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전 제품의 작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해당 국가의 주파수 환경에 적합한 부품을 장착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전제품을 작동하게 하는 전동모터는 코일이 감겨 있는데, 이 코일은 주파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50Hz 전용으로 만들어진 모터가 국내 60Hz 환경에서 작동되게 되면 회전수가 빨라져 모터의 수명이 감소하고, 기기내의 회로장치와 커패시터와 같은 부품이 과전류로 인해 타버리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 (50Hz) 중 마이크로파(Microwave)에 의해 작동되는 전자레인지나 인덕션 전기레인지는 국내 가정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외국 전기규격으로 들여온 제품을 국내에서 그대로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외 구매제품은 국내 전기안전인증, 전자파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아 국내 사용환경에서의 전기적 안정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으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일간지에서도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 관련 기사를 내 보냈으며 해당기사는 아래의 링크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전압·주파수 규격 각 나라마다 달라...고장·사고 위험도\(매일경제, 4.9\)](#)

이에 따라, 밀레코리아에서는 전기적 안전성의 문제로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설치, 수리등의 어떠한 애프터서비스도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며 이 점에 대하여 깊은 양해 말씀 올립니다.